

# auri brief.

건축공간연구원

No.222 2020.12.07

## 인구변화를 고려한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 요약

- 저출산·고령화 등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영유아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입지와 개소 수 또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 변화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중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천군을 선정하여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였음
- 2030년까지의 인구변화 예측과 복지시설 서비스수준을 토대로 개선 전략을 ①재배치 권장, ②현 위치 유지, ③추가 공급 권장으로 제시하였으며, 두 지역(경북 경주시, 충남 서천군)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절반 이상의 시설이 재배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상북도 경주시 내 분포하고 있는 경로당의 82.5%, 충청남도 서천군 내 분포하고 있는 경로당의 67.0%가 재배치와 추가 공급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인구변화에 따라 복지시설의 서비스수준은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복지시설의 수요변화 예측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수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지역 여건에 따라 개별 복지시설의 재배치 및 추가 공급 등 개선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 권역의 세분화 및 개별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변화에 초점을 두어 개선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시뮬레이션 중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한 기준이었던 복지시설 서비스수준은 현재 시점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 현재 시점의 기준을 미래 시점에 적용한 한계가 있어, 인구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시설별 서비스수준 기준이 마련될 필요

| 주제어 | 복지시설, 취약지역, 인구변화, 서비스수준

## ①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시뮬레이션 개요

### ● 배경 및 목적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가속화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행복한 건축실현’을 위해 ‘생활밀착형 복지공간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 복지공간 조성 확대,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시설 통합적 연계를 제시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총리훈령으로 제정되었고(2019. 11. 16.), 사회기반시설 개념을 확장하여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일컫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개념을 제시
  -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으며, 2022년까지 국가 최소 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공공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등)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생활SOC 시설의 국가최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 결과, 서비스 소외지역(서비스 사각·부족지역)을 우선 공급 대상지역으로 도출하였으며, 시설 소관부처의 자체 기준과 지자체 의견, 현장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시설 공급이 추진되고 있음
-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이 마련됨
  - 생활SOC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은 실제 시설의 공급 현황 결과에 대해 향유수준(인구 90% 포괄 구간)을 설정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이용현황 및 희망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제시하였음

#### 국가적 최저기준 도출방법

구분	향유수준	수요		참고수준
		이용현황	장래수요	
사용지표	현황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표본 2,000명 결과		국내외 정책 기준/통계
자료특성	1인당 평균 접근거리	시설 이용자의 이동거리 평균	희망거리 평균	다양
기준설계방향	인구의 90%가 접근 가능한 근린의 구간한계값은 도시주민이 향유 가능한 최소거리로 설정	시설별, 지역별, 평균값으로서 향후 단기 목표치	접근거리 희망값으로 국민이 원하는 접근성의 최대치	이동거리에 대한 기준치, 통계를 근거로 활용

출처 : 국토교통부(2019).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4. [표2-4]

- 실질적 정책 추진 및 성과 진단을 위해 현황 중심의 기준에서 인구변화 예측에 기반한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 마련 필요
  - 생활SOC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은 현재 시점 기준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2019년부터 국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등 인구수 및 인구구조변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 여건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향후 인구변화를 전망하여 복지시설 수요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전략 수립이 중요

## ● 시뮬레이션의 방법 및 절차

- 인구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영유아와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을 분석대상으로 설정
  - 인구변화 측면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장 큰 변화의 요인으로 영유아 인구(0~5세)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 인구와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수요 또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을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선정함
-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단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
  - (1단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대상지역을 시설별 거리기준의 접근성, 미래시점(2030년)에서의 인구변화, 해당 지역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선정
  - (2단계) 대상지역을 200m×200m 격자를 기본단위로 하여 2030년 시점에서의 영유아 및 고령 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2017년과 2030년의 두 시점에서의 복지시설 서비스수준을 분석
  - (3단계) 복지시설 서비스수준 변화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 조성전략으로, 시설 재배치, 현재 수준 유지, 신규 공급을 검토하고 조성전략에 따른 효과를 검토

1단계 : 사례지역 선정(2개 시·군·구)
• 선정 기준 : ① 거리기반의 접근성, ② 인구구조 변화, ③ 지자체 재정여건
▼
2단계 :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변화 예측
• 분석단위 : 200m×200m 격자 • 기준시점 : 2030년
▼
3단계 : 시설 서비스수준 변화 분석
• 기준시점 : 2017년, 2030년 • 분석방법 : 시설별 거리조각 함수에 따른 서비스수준 분석
▼
4단계 : 조성전략 적용 및 효과 분석
• 조성전략 : ① 시설 재배치, ② 현 수준 유지, ③ 신규 공급

###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조성전략 시뮬레이션 수행 절차

\*주 : 시뮬레이션 공동 수행기관 - (주)세아(김현중 박사)

출처: 이종민 외. (2019).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82.

## ② 시뮬레이션 대상 지역 및 복지시설 현황

### ● 분석절차 및 방법

- 복지시설별(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거리기반의 접근성, 2030년까지의 영유아 인구 감소율 및 고령자 인구 증가율, 시·군·구 단위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취약지역 도출 및 대상 지역 선정
  - (거리기반 접근성) 상주인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격자단위의 인구 거주위치로부터 해당 시설까지의 최단거리를 산출하고 각 격자단위별 해당 인구수를 곱하여 해당 격자단위(100m×100m)에서의 '거리×인구수'의 합계와 인구 수를 나누어 '1인당 시설 접근거리'를 산출
  - (장래인구 추계) 통계청에서 2015년에 개발한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프로그램(KOSTAT-SPP)'을 통해 산출된 2035년까지의 장래추계인구 데이터를 활용
  - (재정자립도)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

단계 1 : 어린이집 · 유치원 · 경로당 접근성 하위 30% 지역(어린이집 ∩ 유치원 ∩ 경로당)
• 32개 시·군·구 지역
▼
단계 2 : 영유아(0~5세) 감소율 30% 이상 지역
• 18개 시·군·구 지역
▼
단계 3-1 : 고령자(65세 이상) 증가율 40% 이상 지역
• 10개 시·군·구 지역
▼
단계 3-2 : 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
• 단계 3-1과 동일한 10개 시·군·구 지역
▼
단계 4 : 사례지역 선정
•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천군

#### 복지시설 취약지역 도출 및 시뮬레이션 대상 지역 선정 절차

출처: 이종민 외. (2019).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84.

### ● 대상지역 선정 결과

- 공간정보분석을 통해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천군 선정
  -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의 1인당 접근거리 하위 30%를 기준으로 32개 시·군·

구를 도출하였으며, 이 중 2017년부터 2030년까지의 영유아 감소율이 30%이상인 지역과 고령자(65세 이상) 증가율 40% 이상 지역은 10개 시·군·구로 나타남

- 10개 시·군·구 중 경상북도 경주시는 유일한 ‘시’ 지역으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시물레이션 대상지로 선정함
- 10개 시·군·구 중 지방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송군이었지만 백두대간이라 불리는 산간지역이라는 특이성과 먼저 선정된 경주시가 경상북도 지역임을 고려하여,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청남도 서천군을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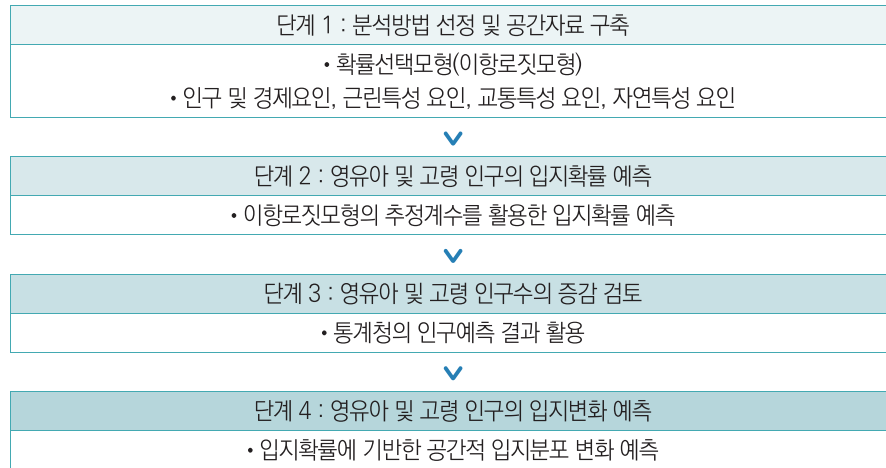
### ●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현황

- 경상북도 경주시에는 어린이집 174개소, 유치원 62개소, 경로당 616개소 분포
  - 경상북도 경주시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는 반면, 경로당은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산포되어 있음
- 충청남도 서천군에는 어린이집 26개소, 유치원 26개소, 경로당 334개소 분포
  - 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 경상북도 경주시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은 수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도심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고 경로당은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군 전역에 산포되어 있어 경상북도 경주시와 유사한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음

## ③ 대상지역 인구분포 변화 및 복지시설 서비스수준 변화 예측

### ● 대상지역 인구분포 변화 분석 방법 및 절차

- 미래의 인구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크게 네 단계로 분석
  - (1단계) 인구변화 예측은 확률선택모형을 활용하여 필요한 공간자료를 경상북도 경주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을 대상으로 구축
  - (2단계)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의 입지확률 예측은 확률선택모형 중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들을 활용하여 시물레이션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입지확률을 분석
  - (3단계) 통계청의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프로그램(KOSTAT-SPP)’을 통해 예측된 장래 추계인구를 토대로 2030년 시물레이션 대상 지역의 인구변화에 대한 기초통계자료 구축
  - (4단계) 시물레이션 대상 지역의 장래추계인구수를 2단계에서 도출된 주거입지확률을 적용하여 입지확률에 기반한 100m×100m 격자단위로 인구분포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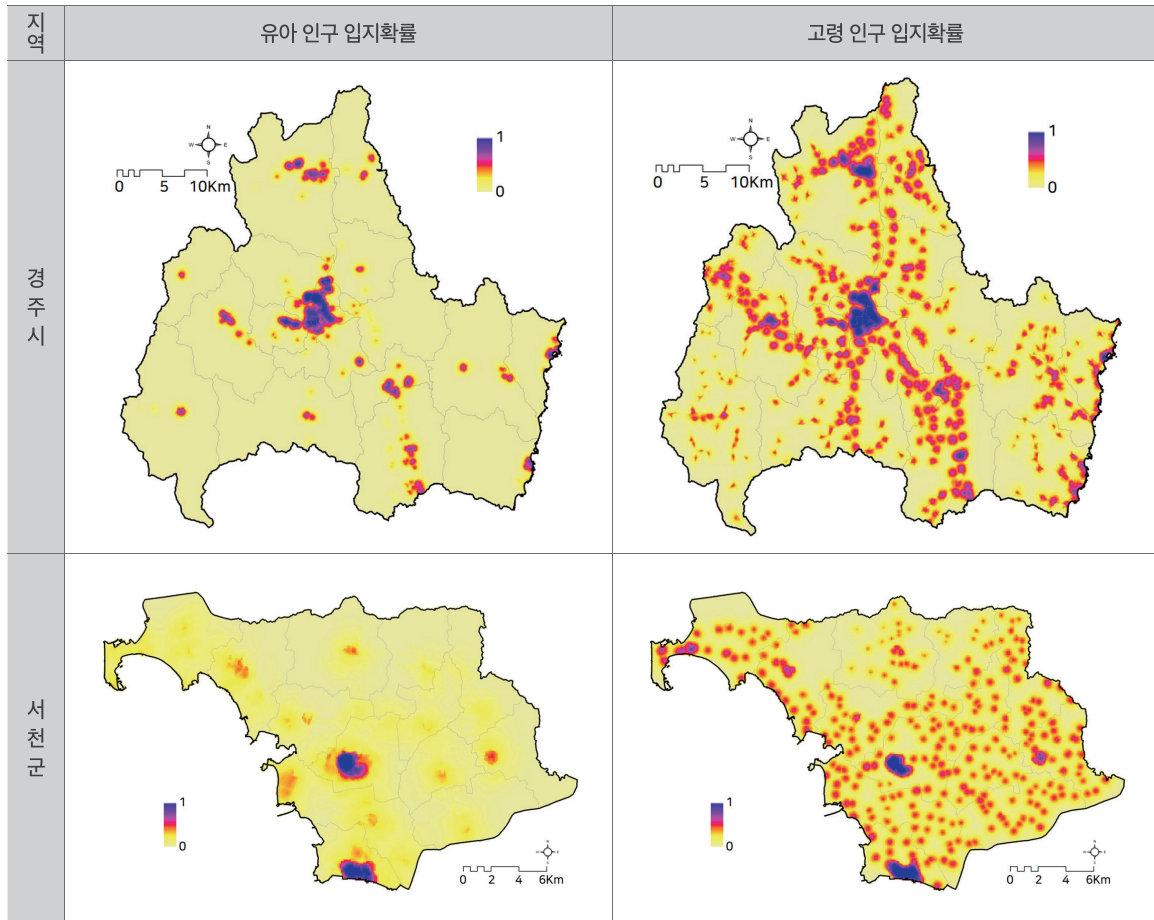
#### 영유아 및 고령인구의 입지분포 변화 예측을 위한 논리구조와 절차

출처: 이종민 외. (2019).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93.

- 주거입지확률을 분석하기 위해 주거입지요인으로는 선행연구와 자료구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 및 경제특성, 근린특성, 자연특성 등을 선정
  - 인구 및 경제특성으로는 유아 인구 집중도, 고령 인구 집중도, 공시지가 등이 있으며, 근린 특성으로는 지역 중심지와 거리,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보건소·소매점과의 거리를 변인으로 활용함
  - 교통특성은 간선도로와의 거리, 고속도로 IC와의 거리, 기차역과의 거리 등이 있으며, 자연 특성으로는 경사(도), 표고 등을 변인으로 활용함

### ● 인구분포 변화 예측 결과

- 2030년에 두 지역 모두 유아 및 고령 인구의 분포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
  - 2030년 유아 인구와 고령 인구 분포를 주거입지확률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유아 인구와 고령 인구의 입지확률이 높은 격자단위(100m×100m)에서는 유아 인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증가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
  - 유아 인구는 경상북도 경주시와 충청남도 서천군 모두 기존 도심지역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인구는 시·군 전역에 걸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기존의 입지지역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입지 조건이 열악한 지역(입지확률이 낮은 지역)들부터 유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경상북도 경주시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의 입지확률 추정결과

출처: 이종민 외. (2019).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102, 106.

## ● 서비스수준 변화 분석 방법 및 절차

- 복지시설의 서비스수준 변화 분석을 위해 크게 세 단계로 분석
  - (1단계) 서비스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공간적 접근성 분석을 위해 시설별 적정서비스의 거리 조락 및 양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유사 지역 간의 비교분석을 수행
  - (2단계) 2017년과 2030년의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서비스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시설별 서비스수준의 변화를 미시적인 수준에서 측정 및 분석
  - (3단계) 2단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역에서 나타날 인구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복지 시설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모색



## ● 서비스수준 변화 예측 결과

- 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우 2030년에 서비스수준 변화는 경로당 1개소가 서비스할 수 있는 잠재적 고령 인구수가 72.1% 증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9.7%,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경상북도 경주시에 분포하고 있는 62개의 유치원 중 2030년에 서비스수준이 감소하는 시설은 모두 14개소로 분석되었으며, 어린이집도 174개소 중 18개소에서 서비스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서비스수준이 감소되는 시설은 경주시 전역에 분포
  - 경로당은 경주시 북부와 중앙에 위치한 경로당에서 향후 서비스 가능 인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경로당 616개소 중 72개의 시설에서 향후 서비스 가능 인구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도 경상북도 경주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별로 서비스 가능 인구수의 감소(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증가(경로당)의 폭이 경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충청남도 서천군에 분포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향후 서비스 가능 인구는 영유아 수 감소 폭이 적어 3.0%(유치원), 1.0%(어린이집)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
  - 경로당은 334개소 중 108개소에서는 수요 변화가 없었으며, 수요 변화가 예측된 226개소 중 100명 이상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설이 15개소로 예측됨

경상북도 경주시 및 충청남도 서천군의 복지시설 서비스수준의 변화(2017~2030)

구분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천군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2017	거리 조락 내 상주인구	5,104	4,824	41,496	951	867	14,235
	시설 개소	62	174	616	20	26	334
	시설당 서비스 가능 인구	82	28	67	48	33	43
2030	거리 조락 내 상주인구	4,740	4,357	71,415	922	858	19,386
	시설 개소	62	174	616	20	26	334
	시설당 서비스 가능 인구	76	25	116	46	33	58
증감률(시설당 서비스 가능 인구)		-7.1%	-9.7%	72.1%	-3.0%	-1.0%	36.2%

출처: 이종민 외. (2019).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116.

## ④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

### ●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 유형

-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별(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적정 서비스 인구수 도출



- 적정 서비스 인구수 기준은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참조집단 평균을 적용함
- 시 지역의 적정 서비스 인구수는 유치원의 경우 반경 500m 내 100명, 어린이집은 300m 내 40명, 경로당은 300m 내 70명을 기준으로 함
- 군 지역의 적정 서비스 인구수는 유치원의 경우 반경 750m 내 50명, 어린이집은 반경 750m 내 30명, 경로당은 250m 내 30명을 기준으로 함
-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 입지분포 변화 예측,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서비스 수준 변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배치 권장, 현 위치 유지, 추가 공급 권장 등 세 가지 개선 전략을 제시
  - (추가 공급 권장) 시설별(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서비스수준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30% 이상의 잠재적 서비스 인구수를 확보한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해당 시설을 공급할 것을 권장
  - (재배치 권장) 시설별 서비스수준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수요의 절대적 부족에 직면한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기존 시설을 재배치할 것을 권장
  - (현 위치 유지) 추가 공급 또는 재배치 권장에 속하지 않는 범위 즉, 서비스수준의 평균보다 -50% ~ +30%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현 위치 유지를 권장

복지시설 조성전략의 유형화별 적정 서비스 인구수

(단위: 인)

구분	시 지역			군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현황	165	45	65	49	42	21
재배치 권장(유형 1)	50 이하	20 이하	35 이하	20 이하	15 이하	15 이하
현 위치 유지(유형 2)	51~130	21~52	36~91	21~52	16~39	16~39
추가 공급 권장(유형 3)	130 이상	53 이상	92 이상	53 이상	40 이상	40 이상

출처 : 이종민 외. (2019).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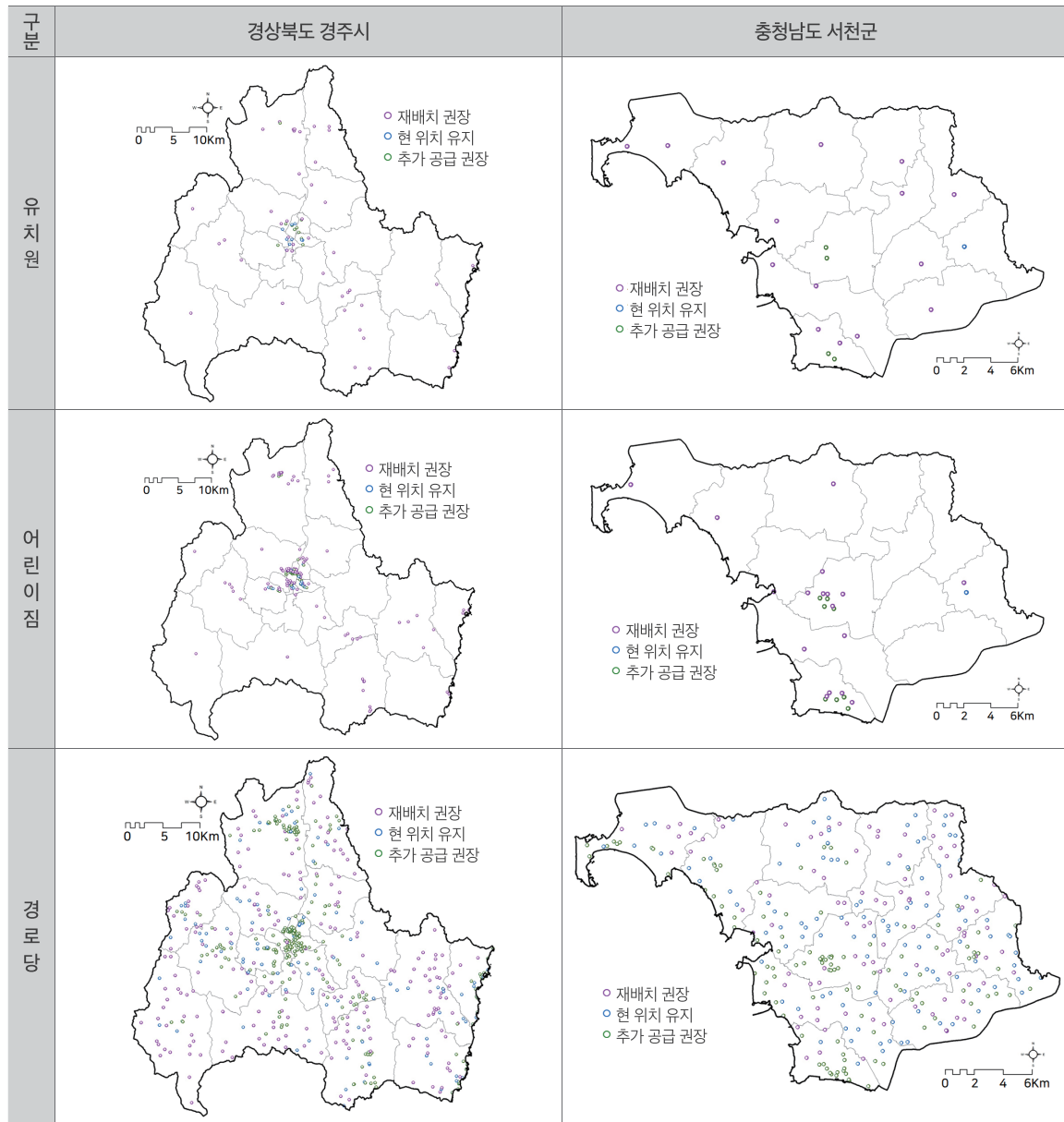
## ●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 적용 결과

- 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우 2030년에 어린이집·유치원은 대부분 재배치가 필요하며, 경로당의 경우 추가 공급과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유치원의 경우 43개소(69.4%)가 향후 재배치 권장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 위치 유지는 9개소(14.5%), 추가 공급은 10개소(16.1%)로 나타남
  -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유치원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배치 권장이 123개소(70.7%), 현 위치 유지가 17개소(9.8%), 추가 공급 권장이 34개소(19.5%)로 분석됨
  - 경로당은 재배치 권장이 253개소(41.1%), 현 위치 유지가 108개소(17.5%), 추가 공급 권장이 255개소(41.4%)로 나타나 재배치와 추가 공급 권장 전략이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 경주시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 유형 적용 결과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재배치 권장(유형1)	43	69.4	123	70.7	253	41.1
현 위치 유지(유형2)	9	14.5	17	9.8	108	17.5
추가 공급 권장(유형3)	10	16.1	34	19.5	255	41.4
합계	62	100.0	174	100.0	616	100.0

출처: 이종민 외. (2019).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124.



경상북도 경주시 및 충청남도 서천군의 복지시설 조성전략 유형화 결과

출처: 이종민 외. (2019).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125.

- 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 경상북도 경주시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2030년도에 어린이집·유치원은 재배치가 필요하며 경로당의 경우 추가 공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의 경우 15개소(75.0%)가 향후 재배치 권장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 위치 유지는 1개소(5.0%), 추가 공급은 4개소(20.0%)로 나타남
  -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재배치 권장이 17개소(65.4%), 현 위치 유지가 1개소(3.8%), 추가 공급 권장이 8개소(30.8%)로 분석됨
  - 경로당은 재배치 권장이 108개소(32.3%), 현 위치 유지가 110개소(32.9%), 추가 공급 권장이 116개소(34.7%)로 나타나 세 가지 유형의 전략이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 서천군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 유형 적용 결과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재배치 권장(유형1)	15	75.0	17	65.4	108	32.3
현 위치 유지(유형2)	1	5.0	1	3.8	110	32.9
추가 공급 권장(유형3)	4	20.0	8	30.8	116	34.7
합계	20	100.0	26	100.0	334	100.0

출처: 이종민 외. (2019).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126.

## 5 시사점

###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복지시설 수요변화 예측 및 조성전략 마련 필요

- 미래의 인구변화가 야기할 수요의 감소 및 증가는 복지시설의 재배치, 추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사전적이고 유연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
  - 경상남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천군을 대상으로 향후 2030년까지의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복지시설의 재배치, 추가 공급 권장이 많이 나타나 인구변화에 따라 향후 복지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복지시설의 입지는 주민들의 이용률과 직결되어 있으며, 인구변화 등이 야기할 미래의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구변화 등 미래 수요변화에 보다 사전적이고 유연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사전적 검토 및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개별 복지시설 수요변화를 예측·검증하고 이에 따른 시설별 조성전략을 마련할 필요
  - 경상남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요 감소,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수요 증가 등의 전반적인 경향이 나타남

- 하지만 일부 경로당은 고령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개별 시설의 관점에서는 지역 차원의 전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복지시설 입지 변화는 개별 시설의 관점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계획적 노력이 필요하며, 복지시설별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해 미래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복지시설별 서비스 기준 마련 필요

- 지역별로 정주환경 특성은 상이하며, 동일한 도시 또는 농촌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 및 세분화된 복지시설 서비스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의 서비스수준을 유사지역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 전략(재배치 권장, 현위치 유지, 추가 공급 권장)을 제시함
  - 하지만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 등 복지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실효성 있는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 및 세분화된 복지시설 서비스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관련 보고서 원문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이종민 부연구위원 (044-417-9697, leejm@auri.re.kr)

이민경 부연구위원 (044-417-9836, mklee@auri.re.kr)



건축공간연구원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발행인 박소현

[www.auri.re.kr](http://www.auri.re.kr)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전 화 044-417-9600 팩 스 044-417-9607

